

2026학년도 대비
연계 예측

EBS

#현대시 ① - 최하림. 「아침 시」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네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싸인다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불이 붉은 막내까지도 킁킁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하는 잡목 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 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가 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꿩지 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며 흘러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EBS

#현대시 ②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萬里)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EBS

#현대시 ③ - 문병란. 「꽃씨」

가을날
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슬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에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 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기인 기다림의 창변(窓邊)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EBS

#현대시 ④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아마존 수족관 집의 열대어들이
유리 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뚫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의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번기 같은 깃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시(詩)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EBS

#현대시 ㉔ - 이몽학. 「오랑캐꽃」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
이라 전한다 —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EBS

#고전시가 ㉑ - 조우인. 「출새곡」

북방 이십여 주에 경성(鏡城)이 접경인데
치병(治兵) 목민(牧民)*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구나
서생의 일은 한묵(翰墨)*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로다
임금께 절 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만리 밖 국경에 이 한 몸 다 잊었어라
홍인문 내달아 녹양에서 말 갈아타니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옛 사실* 기별로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죄이고
높고 험한 절령을 험하단 말 전혀 마오
세상살이에 비겨 보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한양은 어디오 대궐이 가려졌도다
안변 북쪽은 저기쯤이 오랑캐 땅이러니
비린내 노린내 일소*하여 천리 밖 몰아내니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을 초목이 다 알도다
용흥강 건너 들어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낙민루에 올라앉아
옥저* 땅 산하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년 풍패*에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중략)

군영에 일이 없고 막사 한가한 때
기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이려
꽃 피는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가니
춘풍이 화창하여 맑은 경치 부쳐 내니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 되어 있고
구름인 양 눈인 양 파도는 하늘을 끝을 삼아
솟구치고 흩어지며 대 앞에 물러가니
은빛 산이 걷히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비단 같은 잔디에 백운 같은 천막 치고
버들잎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무리 지은 미녀들 좌우에 벌여 있어
아쟁이며 비파를 타거니 켜거니
아리따운 여인들 추거니 부르거니
봄 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끝없으니
한바탕 봄놀이 싫증남 직하다마는
고향을 바라보니 험한 고개 가려 있고
객지의 산천은 곳곳이 육진(六鎭)이로다
태평 시절 적객은 도처에 군은(君恩)이로되
대궐에서 떨어진 몸 뉘 아니 슬피하며

대궐로 돌아갈 일 어떻게 기약할까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
 시운(時運)의 탓이런가 운명에 매였는가
 진대* 백수(白首)에 세월이 쉬이 가니
 초택 청빈*은 원망도 많은지고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 잊자 하니
 동해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 어이할꼬
 어부 이 말 듣고 낚싯대 돌려메고
 뱃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니
 세상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갖가지 세상살이에 낚싯대 하나뿐이로다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 오며 가며 하는구나

- *치병 목민: 군대나 군인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이룸.
- *한목: 문학과 필묵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룸.
- *회양 옛 사실: 한나라 무제 때 급장유가 선정을 베풀었던 일. 회양은 강원도 북부에 있는 고을로 급장유가 태수를 지낸 회양과 이름이 같음.
- *적객: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경성 판관으로 부임하는 작가의 신세를 일컬음.
- *비린내 노린내 일소: 비린내와 노린내를 물 뿌리고 쓸어냄. 오랑캐를 정벌한다는 뜻으로 쓰임.
- *윤관: 고려 예종 때의 문신. 여진을 정벌하고 함경도 지방에 구성을 개척함.
- *김중서: 조선 세종 때 무신. 육진을 개척해 국토를 넓히는데 큰 공을 세움.
- *옥저: 함경도 함흥 일대에 위치했던 고대 국가.
- *풍패: 천 년 전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고향에 빗대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을 가리킴.
- *진대: 초나라 회왕과 무산신녀가 밀회를 즐기던 누대.
- *초택 청빈: 초나라 연못 푸른 마름. 초나라 굴원이 유배지에서도 번치 않은 충절을 지녔던 사실을 의미함.

EBS

#고전시가 @ - 박인로 '선상탄'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분풀이도 한풀이도 어려울 듯하건마는
 그러나 죽은 제갈도 산 중달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을 갖추고 목숨을 이었으니
 취때 깨때 도적들을 잡시나마 저어할쏘나
 비선(飛船)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헤치리라
 칠종칠금*을 우리인들 못하겠는가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이 어서 항복하려무나
 항복한 자 안 죽이는 법 너를 굳이 섬멸하라
 우리 임금 성덕이 더불어 살자 하시니라
 태평천하에 요순 군민(君民) 되어 있어
 일월 광화(光華)는 아침마다 거듭하거늘
 전선(戰船) 타던 우리 몸도 어주(魚舟)에서 노래하고
 가을달 봄바람에 높이 배고 누워 있어
 성대에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칠종칠금(七縱七擒): 촉나라의 제갈량이 맹획을 일곱 번이나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주었다 함을 뜻함.

EBS

#고전시가 ㉓ - 구강, 『복새곡』

온성이 몇 리런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갑자기 소주 장수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사람 솜씨 아냐
 관가 술이 분명하네 그 곡절 모를쏘냐
 이 사람이 술 좋아함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열껏 들었으니
 아는 체 무엇 하리 담배대 돌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홍로(甘紅露)와 다름없네
 속 깊도다 이 부사(府使)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부터 종성까지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빠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버선 행진(行纏)*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구나
 이 물골 이 거동을 남 보이기 부끄럽다
 못사람 가운데 출두하고 남여(藍輿)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을 드리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저 기생의 말 보아라 저 양반이 어사신가
 어사또 물골 보소 그 집이 가난한가
 갓은 어찌 꺾어지고 옷은 어찌 까마며
 발 땀시 더욱 좋다 짚신조차 신었구나
 키 크고 얼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범일러니 보니까 미역이라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봐도 초라하다
 위의를 갖춘 후에 좌수 이방 잡아들여
 몹시 치며 형추*하니 정강이가 찢어지데
 큰칼 씌워 봉인하고 끌어내어 하옥하니
 그 기생의 눈치 보소 고슴도치 되었더라
 아까는 조롱터니 지금은 떠는구나
 네 거동 그만 보고 회령으로 가오리라
 회령 자고 어디 갈꼬 부령으로 가오리라
 고평산(古豊山)* 어두울 때 원(院)집으로 들어가니
 밤중에 숨이 막혀 놀라 깨서 일어나니
 온 방에 연기가 가득 병풍에 불이 붙데
 저고리 찾아보니 개자추*가 되었더라
 하마터면 화장될네 중의 신세 면했구나
 남의 옷 얻어 입고 부령으로 가오리라
 부령길이 무섭더라 불시에 지진 나서
 멀쩡한 평지가 도처에서 꺼지니
 그 속에 한번 들면 다시 날 수 있을쏘냐

여러 달 굶주리다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성대하나 하나라도 살로 가라
 여러 날 추위에 떨다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하니 먹느니 냉수로다
 그 누가 어사 벼슬 좋다고 하였던가
 봉고파출(封庫罷黜)* 쾌한 일인가 형문 곤장 차마 하라
 못할 일 억지로 하니 제 심정 나빠지고
 낙송자*는 원망하며 뽕쌀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찌 알리 그 말을 곧이듣네
 고맙단 이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어찌 다 좋으리 부끄러운 일 없으면
 무슨 상관 있겠는가 상관할 일 있더라
 내 애써 다니면서 백성 고통 자세히 알아
 낱알이 보고하니 조정에서 살펴보고
 열에서 일고여덟 시행을 아니 하면
 그 아니 허망한가 이 일이 상관있다
 하물며 복도 백성 위로할 것 많더라
 위로하여 주시면 부탕도화 하오리라*
 불쌍하다 복도 백성 한양이 수천 리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리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쏘냐 형편이 하릴없다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무슨 수가 있을쏘냐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놓지 아니하니
 내가 차마 가겠는가 머물며 위로한 말
 우리 주상 전하님이 너희 고통 염려하시
 날 보내어 알려 하시니 내 가서 아뢰려니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치리라
 비노니 햇빛 아래 백배(百拜)하고 비노니
 붉기운이 포택*할 때 음곡*부터 먼저 하면
 먼 곳의 저 사람들 거의거의 도모하리
 만 넘게 늙은 몸이 임금 은혜 아니시면
 육천오백 리 먼 길을 탈 없이 왔겠는가
 아이야 잔 씻어라 천황씨(天皇氏) 일만 팔천
 지황씨(地皇氏) 일만 팔천 합하여 삼만 육천 세를
 우리 님께 헌수하자

*행진: 바지나 고의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물건.
 *형추: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깨물던 일.
 *고평산: 함경북도 회령군에 있는 지명.
 *개자추: 중국 춘추 시대 진(晉) 문공(文公)의 신하로, 면산에 은둔했는데, 문공이 그를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으나 나오지 않고 타 죽음.

- *봉고파출: 어사가 부정을 지지른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고을의 창고를 봉하여 잠그는 일.
- *낙송자: 소송에서 패한 사람.
- *부탕도화 하오리라: 어렵고 힘겨운 일을 피하지 않으리라.
- *포택: 은덕과 혜택을 베풀.
- *음곡: 그늘진 골짜기.

EBS

#고전시가 ④ - 이정환 「비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용(仙容)*을 친히 뵈 듯하여라
 <제1수>

풍설 섞어 친 날에 문노라 북래(北來) 사자(使者)*야
소해(小海) 용안(容顏)*이 얼마나 추우신가
고국(故國)의 못 죽는 고신(孤臣)이 눈물겨워 하노라
 <제2수>

박제상 죽은 후에 임의 시름 알 이 없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뒤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슬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퍼하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많아라
신고(辛苦)한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한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할* 이
없어라
 <제6수>

구렁에 낫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없으니 그 아니 좋을쏘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노라
 <제8수>

이것아 어린것아 잠말 하지 마라
칠실(漆室)의 비가(悲歌)*를 뒤라서 슬퍼하리
어디서 탁주(濁酒) 한잔 얻어 이 시름 풀까 하노라
 <제10수>

- *학가 선용: 수레를 탄 왕자의 모습.
- *북래 사자: 북쪽에서 온 사신.
- *소해 용안: 우리나라 왕자의 얼굴.
- *춘궁: 왕세자.
- *조구리: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참승할: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칠실의 비가: 제 신분에 맞지 않는 근심을 가리킴.

EBS

#고전시가 ⑥ - 김득연, 「산중잡곡」

와룡산(臥龍山) 내린 아래 반무당(半畝塘)* 새로 여니
티 없는 거울에 산영(山影)이 잠겼구나
이 내의 경영(經營)하는 뜻은 그를 보려 하노라
<제1수>

솔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으니
풍월(風月) 연하(煙霞)는 좌우로 오는고야
이 사이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제3수>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綠陰)이 난다
수(錦繡) 추산(秋山)*에 밝은 달이 더욱 좋다
하물며 백설(白雪) 창송(蒼松)*이야 일러 무엇하리오
<제8수>

도원(桃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홍하(紅霞)*가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рода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제14수>

육십 년(六十年)을 다 지낸 후에 또 두 해를 지냈더니
오늘날 봄을 보니 또 한 해 또 오도다
매일에 또 한 해 또 한 해 하면 천백 년(千百年)에 이르
리로다
<제26수>

젊은 벗님네야 늙은이 웃지 마라
젊기는 잠깐 사이요 늙기는 더 쉬우니
너희도 나 같으면 또 웃을 이 있으리라
<제38수>

칠십 년(七十年)을 다 지낸 후에 또 팔 년(八年)에 다다
르니
한가한 이 몸이 수역 중(壽域中)*에 늙어 간다
오늘날 또 봄을 만나 격양가(擊壤歌)*를 하노라
<제39수>

늙기는 다 서럽거니와 오래 살기 어려우니
진실로 오래 살면 늙을수록 더 놀리라
우리는 낙이망우(樂而忘憂)하야* 늙는 줄을 모르리라
<제44수>

*반무당: 조그만 연못.
*금수 추산: 비단같이 아름다운 가을 산.
*백설 창송: 눈 속의 푸른 소나무.
*홍하: 붉은 노을.
*수역 중: 오래 살았다고 할 만한 나이로
*격양가: 삶에 만족하여 부르는 노래.
*낙이망우하야: 삶을 즐기며 근심을 잊어.

EBS

#고전소설 ① - 작자 미상, 「주봉전」

이때에 주봉은 빌어먹으면서 방방곡곡 마을마다 다니고 있었다. 천만뜻밖에 옥저와 탄금 소리가 바람결에 은근히 들리는데, 마음으로 반가워 찾아가 보니 옥저도 낮익고 탄금도 낮익은 것이었다.

‘내 것이 틀림없구나! 분명히 나의 옥저와 탄금이구나!’
주봉이 눈물을 흘리니 해선이 물었다.
“결인은 무슨 연고로 그렇게 슬피하십니까?”
주봉이 말하기를,
“나는 황성 남천문 밖에 사는 주 승상의 아들이었다네. 소년 급제하여 한림부에 있었는데, 황제께서 벼슬을 내리시니, 만 조백관이 시기하여 나를 해평 도사로 보냈다네. 신하의 도리로 나라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부임지로 가다가 해중에서 수적 장취경을 만나 하인 수백 명을 모두 잃고 나 또한 물에 던져졌는데 옥황상제께서 살려 주셨다네. 그 때문에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빌어먹고 있다네.”

주봉이 옥저와 탄금을 자세히 보기에 해선이,
“옥저와 탄금을 붙여 보십시오.”
하고 주었다. 주봉이 받아 가지고 옥저는 입으로 불고 탄금은 손으로 타니, 창창한 소리는 해선이보다 더 나왔다. 이때에 구경하던 사람이 다가오며 말하기를,
“부자지간 아니면 사제지간이겠구나!”

라고 하였다. 해선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의 사연이 황성에서 주 승상 부인이 말씀하신 주봉과 같구나! 또 주 한림이 떠난 지 십사 년이라 하고 또 나의 나이는 십사 세이며, 또 사람마다 일러 말하기를, 내가 저 결인과 똑같다 하니 참으로 이상하구나!’
그러나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해선이 결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의 재주가 이려하니, 영보산 철보암자가 대사찰이요, 경치도 좋다 하니, 우리도 그곳에 가서 함께 놀아 봅시다.”
주봉이 승낙하고 해선을 따라 올라갔다.

이때는 마침 춘삼월이어서 곳곳에서 새소리요, 가지마다 봄빛이었다. 층암절벽은 반공에 솟아 있고, 배꽃과 복숭아꽃은 만발하였으며 두견새가 슬피 울 때,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서 정문에 앉았다. 옥저는 주봉이 불고 탄금은 해선이 타니, 그 옥저 소리는 산천초목이 춤을 추는 듯하고, 탄금 소리는 온갖 짐승이 모여 노래하는 듯하였다. 여승들이 그 노래를 듣고 앞다투어 가면서 구경하였다.

이때에 이 부인은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팔관 대사가 부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저 풍각 소리를 들어 보니 부자 아니면 사제일 것 같다.”
 이 부인이 이상히 여겨 주렴을 걷고 가만히 듣고는,
 “정말 의혹스럽다. 이상하다.”
 하고 대사를 불러 여쭙기를,
 “그 풍악을 부르는 이의 근본을 물어보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였다.
 대사가 부인의 부탁대로 찾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과객의 성명은 무엇이며, 또 어디 계십니까?”
 하니,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한 사람은 황성에 있고, 또 한 사람은 해평에 있습니다.”
 대사가 다시 묻기를,
 “존함을 알고자 합니다.”
 해선이 대답하기를,
 “장해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부인이 깊이 생각하기를,
 ‘내 가장과 해선이 틀림없다. 그러나 가장은 내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었으니 살아오기는 만무하며 생사도 알지 못한다.’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천지가 감동하여 귀신도 감동하고 일월성신도 감동하여 천지운기로 살았는가? 부처님의 도술인가?’
 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거주를 알려고 일단 섭실방으로 들
 게 하여 접대하였다. 그러고는 버선 두 켤레를 집어 가지고
 나와,
 “아무것도 선물할 것이 없어 이 버선으로 정을 표합니다.”
 하며 주었다.
 주봉이 받아 보니 버선본과 모양이 옛날 자신의 부인이던
 이 부인의 수품(手品)이었다. 버선을 신으면서 부인을 자세
 히 보니, 이 부인이 비록 머리는 깎았으나 얼굴을 어찌 몰
 라보겠는가? 또 한 해선이 버선을 신으려 발을 벗으니 왼쪽
 새끼발가락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부인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인가? 저이는 내 가장이요, 또 저 아이는
 버린 내 자식이구나!’
 싶어 주봉에게 근본을 물었다. 주봉의 말을 듣고 그제야
 이 부인 이 전후의 곡절을 말하니 반갑고 슬프도다! 한 가
 족이 다시 만나게 되니 기쁜 마음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해선이 놀라 달려들며 붙들고 위로하자, 이 부인과
 한림이 겨우 정신을 차려 앉긴 하였으나 마치 넋을 잃은 사
 람 같았다.
 해선이 울며 물었다.
 “소자가 발가락이 없는 것에 반가운 마음을 가지시니,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니, 이 부인이 대답하기를,
 “처음에 가장이 해평 도사로 가다가, 수적 장취경이 나타

나 하인 수백 명을 죽였다. 그리고 또 가장을 물에 던져
 죽이는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취경의 집에 가 있었는
 데, 시비 옥엽이 도망할 피를 생각하여 군복을 지어 입고
 도망하다가 옥엽은 물에 빠져 죽고, 나는 이를 보고 십생
 구사하여 도망하다가 천만뜻밖에 팔관 대사를 만나 이 절
 에 와서 머리를 깎고 너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절의
 스님들이, ‘이 절에서는 아기를 낳은 부인이 없으니 아기
 와 함께 거처할 수가 없다.’ 하여, 할 수 없이 아기를 버리
 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여 ‘혹 죽지 아
 니하면 천만다행으로 만날까?’ 하여 발가락을 끊어 넣고
 유복자 해선이라 하여 저고리 안쪽에 새겨 놓았다.”
 해선이 이 말을 듣고 주 한림과 이 부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소자 살아서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니 그동안 이 절에 거처
 하옵소서.”
 그렇게 약속하고 해선은 제집으로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간 해선은 얼굴색을 변하지 않으면서 제 부친
 앞으로 가서,
 “미색과 재물을 도적질하여 해변에 놓고 왔습니다.”
 하니, 장취경이 기쁜 마음을 측량치 못하였다.

EBS

#고전소설 ② - 작가 미상, 『숙향전』

하루는 할미가 크게 슬퍼하여 숙향이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나이까?”
 할미가 대답하기를,
 “나는 본시 천태산 마고선녀로, 월궁항아의 명을 받아 남자를 구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왔나이다. 예전에 남자가 요지연에 갔을 때도 내가 파랑새 되어 남자를 인도했고, 남군과 혼례를 올릴 때도 삼신산 선관들을 모두 청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으며, 낙양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파랑새가 되어 남자의 서찰을 이랑에게 전하는 등 온갖 일을 돌보았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남자의 고난이 다 끝나 가고, 나 또한 남자와 함께 살 인연이 다 되었기에 슬퍼하나이다.”

하니 남자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두 번 절하고 말했다.

“인간 세상의 무지한 눈이 어찌 할머니가 선녀이신 줄을 아오리까? 저는 전생의 죄가 무거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친신만고 끝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저도 할머니가 전생의 부모인가 싶어 오로지 마음속으로 ‘남군을 만나 좋은 시절을 보게 되거든 할머니의 큰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리라’ 바랐나이다. 남군도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할머니조차 저를 버리고 가려 하시니, 저는 누구에게 의탁하오리까?”

이에 할미가 위로하며 말했다.

“우리의 인연이 다한 것은 하늘이 정하신 운명이오니, 너무 한탄하지 마소서. 저도 남자가 남군을 모시고 함께 노니는 모습을 보려 했는데, 하늘의 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으리오? 남군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또 부모를 만날 날도 멀지 않았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소서.”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린 탓에 부모님의 얼굴과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오니, 부모님을 만나다 한들 어떻게 알아보리이까?”

“예전에 남자를 죽이려 한 낙양 수령 김전이 남자의 부친이로소이다.”

남자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이까?”

하니 할미가 말했다.

“아직 서로 만나 보실 때가 아닌데, 내가 어찌 하늘의 명을 어길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부사가 남자를 물속에 던져 넣으라고 할 때도 내가 남자의 넋을 인도하여 그대 모친의 꿈속에 나타나게 했고, 남자를 매로 치려 할 때도 사령의 팔에 올라앉아 매질을 못 하게 했나이다.”

“할머니의 은혜는 이승에서는 다 갚지 못할 것이니, 저승에 가서라도 꼭 갚겠나이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마저 버리시면 제가 의탁할 곳이 없나이다. 부모님을 찾아가 의탁하고자 하오니, 길이라도 가르쳐 주소서.”

“이제 남자의 부친은 계양 태수가 되어 갔나이다. 이곳에서 계양까지 삼천오백 리나 되기에 남자 혼자 가기 어렵고, 남군을 만나야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나이다. 또 지금 혼자 가시면 남군과 영영 헤어져 생전에 다시 못 만날 것이옵니다. 남자의 액운이 다 끝나서 조만간 좋은 시절을 만나 부귀영화가 누리실 것이니,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또한 저 개를 두고 가오니, 나를 본 듯이 여기서. 저 개가 남자의 어려운 일을 돌보리이다.”

“할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며, 여기서 얼마나 멀고, 또 언제 가시려 하나이까?”

“내가 사는 천태산은 이곳에서 오만 팔천 리요, 이제 곧 떠나려 하나이다.”

이에 남자가 낙담하여 울며 말하기를,

“가시는 곳이 가까우면 따라가고 싶지만 길이 너무 멀어 따라가지도 못하니, 하루만 더 머물러 회포나 풀고 가소서.” / 하니 할미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남자를 데려갈 수 있다면 차마 어찌 버리고 가리오. 내 생각에 남군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지라. 좀 더 머물러 있다가 남군을 보고 가고픈 마음이 굴뚝같사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다 되어 급히 가 오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소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여기에 두고 가 오니, 관과 널을 갖추어 옷을 그 안에 넣고, 저 개를 따라가서 개가 발로 땅을 파헤치는 곳에 묻으소서.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무덤으로 찾아오소서. 내 영혼이라도 남자를 돌보리이다.”

할미가 입고 있던 적삼을 벗어 주고 두어 걸음 걷더니, 문득 간곳없더라.

(중략)

할미가 떠나간 이후 남자는 개를 벗 삼아 근근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자가 달은 밝은데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으니, 외롭고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글로 써서 책상에 올려놓고 잠깐 즐았는데, 깨어나 보니 글도 없고 개도 없었다. 남자가 더욱 망극하여 울며 말하기를,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사람은커녕 개조차 없으니, 무섭고 쓸쓸한 이 밤을 어떻게 보내리오.”

하며 무수히 통곡하다가 기절하더라.

각설이라. 이때 이생은 태학에 들어온 뒤로 남자의 소식을 몰라 밤낮으로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의 옥 같은 얼굴이 눈에 선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가 배회하는데, 멀리서 청 사자처럼 생긴 것이 자기를

향해 울며 달려왔다. 이생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상하도다. 저것은 낭자 집의 청삼사리 같기는 한데, 어떻게 수천 리 밖에서, 그것도 서울의 억만 가구 가운데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리오?’
 하고 있었더니, 그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꼬리를 치며 반겨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낭자 집의 개였다. 이생이 너무 반가워 개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너는 짐승이라도 여기까지 와서 나를 보는데, 나는 사람이면서도 낭자에게 가 보지 못하니 내가 너만 못하도다.” / 하며 무수히 탄식하고 있는데, 그 개가 입에서 무엇인가를 토해 냈다.
 이생이 놀라 즉시 주워서 보니, 낭자의 글씨가 분명했다. 펼쳐서 읽어 보니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슬프다. 속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다섯 살에 부모를 여의고 십 년이 넘도록 동서를 모르고 구걸하러 다니니, 남이 천하게 여기는도다. 십 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더니, 참소는 무슨 일이고? 악명을 씻지 못해 그토록 고생했던가? 월하의 연분으로 낭군을 만나 백년을 의탁하려 했더니, 원앙금침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이별은 무슨 일이고? 오작교 끊어져 만날 길이 아득하니, 소식조차 누가 전할꼬? 혈혈단신 이내 몸이 할머니께 의지하여 근근이 살아왔는데, 할머니마저 죽었으니 이제 누구에게 의탁할꼬? 슬프다. 속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천하는 넓고 크다던데, 어찌하여 조그만 이내 몸 의탁할 곳이 없는가? 살아생전에 낭군을 다시 볼 길 없으니, 저승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도다.
 이생이 다 읽은 후 생각하기를, / ‘낭자가 의탁할 곳이 없으니, 이제 죽으려 하는구나.’
 하고 통곡하며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청삼사리에게 자기 밥을 먹인 후, 편지를 써서 목에 걸어 주고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제 할미마저 죽었으니, 낭자가 의탁할 곳이 없는지라. 오로지 네게 의지하여 살고 있으니, 너는 빨리 돌아가 낭자를 편안히 모셔라.”
 하니 그 개가 머리털을 흔들며 고개를 조아리고 가더라.

EBS

#고전소설 ㉔ - 작가 미상, 『옥소전』

이 밤에 대사마가 일계를 생각하고 검술을 행하여 축군 중에 들어가 동정을 살피더니, 검술을 다하여 바로 장군 차에 돌입하니 사방에 철망이요 한 곳도 허술치 아니하며, 사면으로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어 군중을 돌아다니더니 군사들이 외는 말이 대사마를 본 듯이 꾸짖거늘, 놀라서 문득 어천수가 가르치던 말을 생각하고 깨달아 왈,
 “내 귀술(鬼術)로 남의 군중을 돌입하였다가 도리어 낭패하도다.”
 하고, 도로 본진에 와 울울하여 옥소를 내어 일곡을 부니, 요요한 소리 옥을 깨치는 듯, 축진 장졸이 그 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이 처량하여 일시에 흩어지니, 승상이 대경 왈,
 “이는 장자방(張子房)* 후 일인이라.”
 하고, 아무리 군사를 호령하여 진정코자 하나 분분히 달아나니, 대사마가 축진 동정을 보고 날랜 군사를 내어 풍우와 같이 쫓으니, 진·공 두 장수와 장·어 두 장수가 사면에 협공하여 유인하며 일 합씩 싸워 물러가니, 대사마가 분노하여 정신을 모아 한칼로 잡고자 하나 홀연 철망이 공중에 내려져 벗어나는 양을 보고 탄식하여 왈,
 “저 진중에 필연 천신이 있도다.”
 하고, 칼을 거두고 본진으로 돌아오니, 대저 승상이 경문을 외우면 철문이 공중에 내려지는 도술일리라.
 어천수와 장수백이 장대에 들어와 고 왈,
 “송진 대사마는 다른 이 아니라 소장이 금일 자세히 보오니 소장의 수양아들이요, 어천수의 사위로소이다. 제 근bones을 자세히 아뢰리다.”
 하고, 자초지종을 세세히 고하니, 승상이 다시 헤아리니 분명한 자기 아들이요, 옥소 곡조도 또한 자기의 강릉추월이라. 일희일비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어린 듯이 앓아 다시 말을 못 하다가 축왕께 이 사연을 고하니, 왕이 또한 놀라 왈,
 “여차하면 승상의 자제를 불러 부자가 상봉하게 하면 천하 도모하기는 손바닥 뒤집기 같을까 하노라.”
 승상 왈,
 “비록 부자지정이 중하나 군신지례 갱가일층(更加一層)* 이라. 원컨대 대왕은 신의 말씀을 들으소서. 신이 지난밤에 천문을 보오니, 송 천자의 자미원이 다시 맑은 중 상서 기운을 띠었사오니, 이는 평정할 징조 분명하고, 대왕의 주성을 보오니 십분 희미하오나 또 좋은 기운이 있사오니, 천명을 순하여 귀순하오면 장안에 왕이 되실 징조라. 순하시면 복이 올 것이요, 역하면 화 있으리이다. 대왕은 어찌 처치하리이까.”
 축왕이 깊이 생각한 후 얼마 있다가 왈,

“당초부터 승상의 지휘라. 지금 어찌 좃지 아니리오.”

승상이 못내 하례하고 원문에 나아와 바로 단기로 장수백과 어천수를 데리고 진전에 나가 먼저 어천수로 송진 대사마에게 글을 보내니, 이때 대사마가 울올하던 차 적장이 글월을 가져왔거늘 떼어 보니,

“축나라 승상 이춘백은 글월을 송나라 대사마 대장군 이운학에게 부치나니, 슬프다. 복중 유아를 만리 전장에 원수로 만나니, 도시 나의 죄가 큼이라. 내 황해 감사로 운남도의 적변을 당하여 만사여생(萬死餘生)*이 자개산 백영도사의 제자 되었다가 축왕의 지우지은(知遇之恩)*으로 장안을 얻었더니, 이제 부자 상전은 천리에 죄역이라. 내 단기로 진전에 나왔으니, 빨리 함거를 가져오면 내 스스로 같이 죄를 천자에게 받으리니, 이 장수는 어천수라 너의 장인이니 의심이 없을지라. 자세한 말은 이 장수에게 듣고, 옥소 또한 강릉추월이면 나의 평생 사랑하던 바라. 가서 이 신기한 옥소를 보게 하라.”

하였거늘, 대사마가 보기를 다하매 일신이 떨리고 손발이 황란하여 원문에 나아와 어 장군을 보니 의심 없는 어천수라. 대사마가 읊하여 왈,

“진을 입하여 의심이 없지 아니하니 자세히 말을 듣고자 하노라.”

어 장군이 자초지종을 말하니, 대사마가 옥소를 가져다주어 왈,

“이 옥소는 천만 사람이 붙어도 소리가 아니 나니 빨리 가져다드리라.”

어천수 연망히 받아 가지고 본진에 돌아가 승상께 드리니, 승상이 보니 분명한 강릉추월이라.

일곡을 부니 대사마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필마로 축진중에 뛰어들어 통곡재배하니, 승상이 통곡을 그치고 얼굴을 들어 자세히 보니 자기 모양과 차등이 없거늘, 손을 잡고 말을 이루지 못하니 대사마가 자주 느껴 정신을 잃거늘, 승상이 애련하여 위로하고 붙들고 장중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대사마가 고하여 왈,

“불초자가 지금 죽사오나 한이 없도소이다.”

을 때 조부모 기력이 강건하시고, 모부인이 외가 찾으란 말씀을 날날이 고하니, 승상이 설월루 같은 말씀을 또한 이르고 부자가 즉시 축왕께 보오니, 대사마 축왕을 보고 읊하여 왈,

“왕은 어찌 처하라 하시나이까.”

왕이 대사마의 손을 잡고 치하하여 왈,

“만아들을 전장에 찾았으니 천고에 회한한 경사라. 어찌 치하하지 아니리오. 과인이 외람히 뜻을 두고 마침 부공을 만나 천하를 도모할까 하였더니, 금일 이러한 경사를 당하매 내 홀로 귀순치 아니하리오. 과인도 함께 천자에게 가 뵈옵고 죄를 청코져 하노라.”

대사마가 대희하여 표*를 천자에게 올리고 전후 사연을 갖추어 아뢰니라.

천자가 첩서* 보기 전 대사마의 승전한 소식을 들으시고 평정하기를 날로 기다리시던 차 표를 보시고 대희하사 사관을 보내사 축왕과 승상은 좌우 승상으로 삼고 예관을 또 보내시니, 대사마 천은을 못내 사례하고 환군하여 여러 날 만에 여남을 지날 새, 승상 부자 다시 조 상서 덕을 찾아 들어가 상서를 보고 지난날 떠나던 말씀이며, 또 장인과 사위의 예를 보이고 운학도 월패를 내어 모친 서찰과 같이 드리니, 상서 부부 급히 맞으며 왈,

“꿈이나 생시나. 풍파에 죽었는가 하였더니 귀한 사위와 귀한 외손을 보게 되니, 고급 왕래에 이러한 경사 또 어디 있으리오. 그러나 조정의 높은 벼슬을 맡은 사람들이니 승상 영접지례와 대사마 영접지례를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리라.”

* 장지방: 중국 한나라의 건국 공신 장양을 말함. 옥통소를 붙여 초나라 병사들을 흠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함.

* 갱가일층: 한 단계 더함.

* 만사여생: 꼭 죽을 고비를 면하여 살게 된 목숨.

* 지우지은: 자기의 인격이나 학식을 잘 대우하여 준 은혜.

* 표: 마음속의 생각을 적어 임금에게 올리는 글.

* 첩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하는 글.

EBS

#고전소설 ④ - 작가 미상, 「천수석」

다음 날 새벽, 설 부인은 이 일을 글로 써서 설정문에게 걱정되는 바를 몰래 알리면서, 급히 와서 위광미와 의논하여 바빠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였다. 정당에 함께 있던 설정문 부부는 시녀가 바친 설 부인의 그 편지를 읽다가 미처 다 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며 경악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를 터트렸다.

“간 국구*가 우리를 어찌 이렇게 능멸한단 말인가?”

설정문의 부인 장 씨도 탄식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아이가 깊은 방에 금옥처럼 몸을 잘 감추고 지켰거늘, 숨겼던 이름이 어떻게 어디로 누설되어 이와 같은 간사한 이의 흥계를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설정문이 분해하면서 수레를 타고 가서 위광미 형제를 만나 대책을 의논하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딸아이의 규방 행실은 깊이깊이 숨겨 드러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어떤 간사한 놈이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엿보았는지……. 어쨌든 간악한 무리가 개돼지 같은 자기 자식 때문에 흥측한 계책을 꾸며 이런 화를 만든다고 하니 혼사를 늦추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혼인 날짜를 다시 잡으니 불과 다시 며칠 뒤였다. 위광미 형제와 설정문이 모두 기뻐하며 흠뻑 웃었다. 양쪽 집안에서는 이 일을 밖으로 내지 않았다. 다만 위광미가 어머니께만 아뢰 뒤엔 이 부인이 조용히 예복을 준비하였다.

마침내 혼삿날이 되었다. 양 부인이 그제야 소식을 듣고 분함에 이를 갈며 취정을 보면서 말하였다.

“설씨네 딸을 무조건 탈취하여 간씨 조카의 좋은 짝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묘한 계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집안 식구들이 나를 속이고 뜻밖에 혼인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이 분하고 원통하니 이 씨가 어진 며느리로 슬하를 빛내 득의양양하는 꼴을 어찌 본단 말이나?”

말을 마치고 급히 국구 간문추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도중에 설옥영을 탈취하게 하였다. 그러고는 짐짓 미소를 띠며 밝은 얼굴로 식장에 참석하였다.

한편 설씨 집안에서는 혼수를 정성껏 장만하였으나 가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화를 막을 계책이 정해지지않아 근심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금위교위 이극용은 설정문과 막역한 사이였고 집안끼리도 교유가 있었다. 설정문이 이 일을 이극용에게 상의하였다.

“이런 괴상망측한 자를 속이려면 모릅지기 이리이리하면 될 것입니다.”

설정문이 그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부탁하였다.

“부디 요란하게 굴지는 말게.”

이극용은 알겠다고 하고 양껏 술을 마시고 칼을 빼 손에 들고 따로 가마에 올랐다. 뒤따르는 시종들이 호위하여 큰 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떼의 무수한 하인들이 크고 작은 몽둥이를 들고 몰려나왔다. 그들은 시종들을 모두 내쫓고는 가마를 뺏어 메고 곧장 어디론가 향하였다. 바로 국구 간문추의 집이었다.

이때 보형은 길복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서 설정문 집으로 가고 있었다. 위엄 있는 행차가 큰길에 나서자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보형의 위풍을 입에 달도록 칭찬하였다. 설정문 집에 이르니 내외의 손님들이 빙 둘러 모여 있었다. 설추밀이 막 가짜 가마를 보내고 신랑을 맞이하였다. 위보형은 단장한 설옥영과 전안례를 마친 후 설옥영이 가마에 오르자 가마에 자물쇠를 걸고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였다. 참석한 손님들이 신랑 위보형의 옥 같은 풍모를 보고 칭찬을 자자하게 하였지만, 설정문은 국구 간문추의 소행과 이극용이 장난할 일을 생각하니 끝없는 염려가 생겨 흥이 나지 않았다.

(중략)

그때 위보형의 눈에 차일을 친 곳에서 신부 설옥영의 행동거지를 살피며 눈동자를 바빠 굴리고 안쪽을 살피는 계집종 하나가 들어왔다. 위보형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으로 어찌 잘못 보겠는가? 자세히 보니 여우 같은 맵시, 쥐와 같은 꾸밈새에 벌의 눈과 전갈의 정령을 지니고 있는데, 남자의 몸으로 여자로 변장하여 음양을 바꾼 것이었다. 외당으로 나와 시종에게 슬며시 명하여 난간 아래에 있는 계집종을 서헌으로 잡아 대령하게 하였다. 시종들이 명을 받들어 안채에 고하여 그 계집종을 잡아내 오니 그 여자가 기겁하고 발악을 하며 소리쳤다.

“나는 양씨 집안의 하녀로 성대한 잔치를 구경하러 왔을 뿐인데, 무슨 이유로 이처럼 무례하게 대하느냐?” / 그 소리가 하도 요란하여 내외의 손님들이 놀라서 영문을 묻자 위보형이 대답하였다.

“저 사람은 결단코 여자가 아닙니다. 몸을 수색해 보면 남녀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을 마치고 주변의 시종들에게 명하여 몸을 수색하게 하니 과연 남자였다. 모든 사람들이 휘둥그렇게 놀라 형벌을 내리려 하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시종들을 밀쳐 내며 말하였다.

“나는 간 국구의 천금 같은 아들 간옥지이다. 어렸을 때 설소저와 혼약을 맺었거늘, 위씨 집안 아들이 빼앗아 부인으로 맞이한다기에 분하기 그지없어 여기 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뿐이다. 너희들이 어찌이리 무례하게 군단 말이나? 훗날 반드시 머리 잘린 귀신이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놀라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위보형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기에 시종들에게 물

러서라 하고 말하였다.

“태평성대에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규방 안을 엿보는 변고는 조종에 아될 일이나 그대가 간 국구의 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십분 용서하겠다. 올라와 마음 놓고 구경하라.”

위보형이 용서하는 바람에 간옥지는 겨우 욕을 면했으나 무슨 낯으로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바로 팔을 뿌리치며 대문을 나가 달아나니 그 꼴은 차마 보기에도 민망하였다.

이에 앞서 국구 간문추의 시종들이 설옥영이 타고 오는 가마를 뺏어 곧장 간 국구의 집으로 왔다. 국구 간문추 부자는 정중하게 주변을 물리치고 가마 문을 열었다. 그곳에 모인 안팎의 손님들과 아랫사람들은 이미 옥영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레같이 들었기 때문에 저마다 빨리 보고 이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인네들 역시 옥영을 구경하고자 병풍을 친 듯 둘러섰다. 그러나 발을 들어 본 가마 안에는 옥 같은 가녀린 미인은 간 곳이 없고 큰 사내 한 놈이 서릿발 같은 장검을 칼집에 꽂으며 벽력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나는 금포 장군인데 국구께서 무슨 일로 저를 데려온 것입니까?”

말을 마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왼손에 장검을 들고 오른손에는 철 도리끼를 쥐고 서서히 가마 밖으로 나왔다. 호랑이 수염을 휘날리며 고리눈을 부릅뜨니 번갯불이 번뜩였다. 국구 간문추 부인 양 씨의 시녀와 여러 부인들이 놀라 자빠져 덜덜덜 떨었다. 새신랑 간옥지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쥐 숨듯 달아났다.

* 국구: 임금의 장인.

EBS

#고전소설 ⑤ - 작가 미상, 『청백은』

[앞부분 줄거리] 두 공과 설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쌍성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호 소저를 부인으로 얻는다. 호 씨는 가난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의 장원 급제를 돕는데, 두쌍성이 두 기녀를 잊지 못해 병에 걸리자 이들을 첩으로 받아들인다. 두 첩들은 설 부인과 두쌍성의 누이인 혜화 소저를 두려워하지만 설 부인이 죽자 호 씨를 쫓아내려 음해한다.

두쌍성은 집안의 법도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변괴는 날로 생기는 것을 걱정하느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호 소저에게 가서 말하였다.

“어젯밤, 별채에 불이 난 소식을 들었소?”

“저도 알고 있었습시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내가 집안에서 못되게 하지도 않는데 담장 안에 변이 이처럼 일어나니 노복들을 다스려 그 곡절을 물어보려고 하오.”

호 소저가 비록 명철하지만 거기까지 자신을 의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말리며 말하였다.

“낭군의 은덕이 노복들에게까지 미쳤으니 누가 낭군이 주무시는 곳에 불을 지르겠습니까? 아마도 어린 시비*가 조심하지 못한 것 같으니 잘 생각하십시오.”

두쌍성에게 이 말은 시켜 놓고 조사하면 발각이 될까 말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심하다! 부부 사이의 일이 어이 두렵지 않겠는가?

이후 두쌍성은 옳은 것도 틀린 것으로 보고, 예삿일도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겨 날이 갈수록 호소저를 더욱 미워하였다. 나교란과 여섬요의 의기양양한 마음이 더욱 방자해졌다.

중추 초순은 죽은 설 부인의 생일이다. 혜화 소저도 와서 차례를 지냈다. 차례를 마친 후 두쌍성과 혜화 소저가 옛일을 추억하니 눈물이 옷을 적셨다. 두쌍성은 다시 별채로 갔다. 두쌍성이 기운 없는 것을 본 나교란이 말하였다.

“어르신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통함만 아시고 제사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원통함은 모르십니까?”

“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진작부터 드리려고 하다가 감히 고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시다. 그러나 오늘 어르신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호 부인께서 어르신을 닮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돌아가신 설 부인 마님을 원망하면서 ‘애초에 내가 인사치레로 요망한 녀들을 받아들이자고 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막지 않아 아들이 잘못되었다.’ 하시고, 또 ‘아들을 잘못 가르쳐 공이 있는 아내를 저버리는 행세를 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노여움이 발하면 제물에 더러운 것을 섞는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지극한 효심을 가지시고도 불결한 음식으로 제사를 받들게 되니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참소하는 말은 무수히 들었으나 죽은 설 부인에게 불경한 짓을 한다는 말은 처음인지라, 두쌍성은 모골이 송연하였다. 즉시 시비에게 명하여 두어 그릇 제물을 담아 가져오라 하였다. 이미 간교함이 들어맞게 되자, 나교란과 여섬요가 그릇을 주고받는 사이에 마음대로 하니 안갯속에 갇힌 두쌍성이 어찌 알겠는가? 두쌍성이 친히 젓가락을 들고 헤쳐 보니 그릇마다 한 움큼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두쌍성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호 소저에게로 가니 나교란과 여섬요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두쌍성이 사당 밖에 거적을 깔고 석고대죄하니 집안사람 모두가 놀라고 당황해하였다. 혜화 소저도 깜짝 놀라 즉시 나아가 붙들고 말하였다.

"이 무슨 일이십니까?"

두쌍성이 혜화 소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자식이 되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 욕이 돌아간 어머니께 미치니 스스로 죄와 벌을 받는다고 한들이 큰 불효의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제물이 불결한 것을 이르며 말하였다.

"내가 옛일을 생각하여 모든 일을 다 참았으나 이 일만큼은 자세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인하여 형벌 기구를 갖추고 모든 정당의 시비를 문초하였다.

"제물을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담았는가?"

"모두 호 부인께서 저희들을 거느리고 친히 하셨습니다."

"제물에 머리카락이 들었으니 누가 넣은 것인가?"

"이는 정말 애매한 일입니다. 예전부터 제사 때가 되면 호 부인께서는 목욕재계하신 후, 몸소 부엌에 이르러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깊은 효성에 저희들이 감동하였으니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연히 들어 있어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가 가볍지 않다. 하물며 그릇마다 들어 있음에야! 이는 분명 고의로 그런 것이니 호 부인이 넣지 않았다면 바로 너희들의 짓이다. 사실대로 아뢰어라."

두쌍성이 채근하면서 형벌을 가했다. 두쌍성은 평소 자기 감정을 가볍게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으로 진노하여 눈을 부릅뜨니 가을 하늘에 눈이 날리고 푸른 용이 구름을 헤치는 듯 아름다운 귀밑에 노기가 등등하였다. 태산의 큰 뱀이 바람을 가름에 온갖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북녘의 큰 고기가 화를 내자 온 바다가 출렁이듯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인정 없이 내리치니 모든 시녀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말하였다.

"우리 호 부인이 지극한 효성으로 이런 의심을 받으시니 천지신명은 살피십시오. 친비들이 불충하여 호 부인께서 이런 누명을 쓰셨으니 친비 등의 죄는 천 번 죽어 마땅합니다. 어서 죽여 주시옵소서."

살이 떨어지고 피가 흥건히 흘러도 모든 시비들은 기운이 높고 안색이 더욱 썩썩해져 다만 하늘을 원망하였다. 혜화 소저는 끝까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다가 두쌍성이 호 소저를 이토록 의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아 말하였다.

"오라버니의 총명함이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머리카락을 잘라 어머니의 음식을 장만하려던 사람이 도리어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제물에 섞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언니의 지극한 효성은 차치하고라도, 사나운 사람을 시켜 이런 일을 하게 하였다면 오라버니가 찾을 때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저 일이 순순히 발각되게 하였겠습니까? 이 누이는 곧이듣지 못하겠습니다."

두쌍성은 원래부터 혜화 소저의 총명함을 믿고 있었다. 게다가 시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백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일단 옥에 가두었다가 처치를 기다리라고 명한 후 소매를 떨치며 외당으로 나아갔다. 이때, 두쌍성이 시비를 문초한다는 소식을 들은 호 소저는 마음이 서늘해지고 살이 떨어 길이 탄식하며 혜화 소저에게 말하였다.

"이러한 죄에 연루되었으니 이 세상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낮으로 본부인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부인의 옷을 벗고 뒤뜰 작은 당으로 내려갔다. 온 집안이 흥흥하여 원통함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나교란과 여섬요는 매질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 날뛰었다. 또한 호 소저가 본부인의 옷을 벗고 누추한 곳에서 대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함께 흡족해하였다. 그러나 거짓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얼굴로 호 소저에게 문안하였다.

* 시비: 곁에서 시중을 드는 여자 중.

EBS

#현대소설 ① - 김정환. 「제3 병동」

[앞부분 줄거리] 오롱택 심작은들 노파는 폐결핵과 장질 부사에 걸려 제3 병동에 수용된다. 그의 딸 강남옥 처녀가 온종일 병실에 머물며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같은 병에 감염된다. 의사 김종우는 돈이 없어 입원하지 못한 강남옥을 딱하게 여겨 무상으로 매트를 제공하고 치료해 주었지만, 이를 수납계 직원에게 들켜 서무과장에게 불려 간다.

멀리서 하늘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허물어져 가는 제3 병동의 유리창을 마구 때렸다. 혈령한 창문 틈바구니마다 빗물이 새어 들어 유리를 타 내리고, 강남옥 처녀가 누워 있는 쪽 천장 구석도 차츰 젖어 들기 시작했다. 그러한 빗속에서도 불도저는 내치 부르릉거렸다. 운전사는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의 강하고 약함이 한꺼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향이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그 둔탁스런 불도저 소리도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결같이 희멀건 눈들이 쏟아지는 빗발을 심심치 않게 내다보는가 하면, 그 속에서 부르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오전대 그들은 병원 생활이 무척 괴롭고 지루했던 것이다. 가뜩이나 전염병 환자만이 늘어서 있는 허물어져 가는 3등 병실에서, 그저 치료비 독촉장이나 받을 뿐,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깎듯이 찾아 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인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때로는 비도 반가웠고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따금 우르릉하는 먼 천둥소리에, 솟제 살아 있는 하늘의 방향이라도 잡아 보려는 듯, 눈을 번쩍 뜨는 환자도 있었다. 말하자면 누에가 잠을 잘 때 고개만은 치켜들고 있듯 빗소리에 한결 조용해진 병실 안 사람들도 신경은 내쳐 날카롭기만 했던 것이다.

다만, 넓적한 마스크를 한 간호원이 가끔 와서 보고 가는 오롱택 심작은들 노파만이, 또다또다 떨어져 들어가는 피를 받으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강남옥 처녀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살살이 눈여겨보았다. 매트 위에 누웠을 때도, 천장을 향해 있는 그녀의 핏발 선 커다란 눈은 마치 병실 안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딱 다문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말들을!

.....더구나 수납계의 고참 직원이 불쑥 나타났을 때의 일, 서무과 급사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간호원의 심상치 않은 표정..... 이러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덩달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측이며 생각들이 한때 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도 밀어 버리고 그녀의 망막과 머릿속을 점령했다. 천장에 맺혔던 물방울이 툭 하고 머리맡에 떨어질 때 그런 의식에서 일단 단절된다. 그러나 다시 뒹친다. 다시 뒹치다간, 결국 이것도 저것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머리가 몽롱해 온다. 머리가 몽롱해 오며 의식마저 허물어진다. 결국 그녀의 의식은 고열로 인해서 녹아진 것이다. 강남옥 처녀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녀의 몸뚱이가 김종우 의사와 간호원들에 의해서 그녀의 어머니 곁으로 옮겨졌을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다.

“그저 보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김종우 의사가 그녀가 누워 있던 빈 매트를 발로 밟아 밀어 버리며 괜히 죄도 없는 간호생을 보고 투덜대고 있었다.

“인부 지켜, 수납계 그 늙다리한테 딱 갔다 보이고서 치위 두래! 알았어?”

아직 경험이 없는 실습 간호생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빨리 그러라니까!”

김종우 씨의 말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수간호원이 간호생 더러 뭐라고 타일러 보낸다. 강남옥 처녀는 팔꿈치에 딱딱한 것을 느낀다. 링거 방울이 눈물처럼 눈에 아른거린다. 김종우 의사는 그것을 조절하면서 또 씨부렸다.

“저희들은 턱도 아닌 것들을 데리고 와서 관비 치료니 뭐니 하면서.....”

“그러기 말예요.”

수간호원이 맞장구를 치듯 받는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원장님도 원장님이지 뭐예요.”

좁은 병상 위에서 한쪽은 피 주사를, 한쪽은 링거—다행히 몸피가 여윈 3등 인간이라 좋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차스런 꼬락서니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튿날 저녁 오롱택 심작은들 노파의 몸뚱이는 드디어 병상에서 내려졌다. 뺏어진 것이다.

오롱택 심작은들 노파의 시체는 사흘 동안이나 시체 안치소에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더라도 입원비를 다 내지 않으면 시체를 간대로* 내주지 않는다. ‘누님 전 상서라.....’ 하고 보내 준 외삼촌의 돈도 벌써 다 써 버리고 밀린 약값만 해도 수월찮았거니와 설사 그런 걸 다 무시하 치른다 하더라도, 강남옥 처녀 혼자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중략)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 허물어져 가는 제3 병동의 한 귀퉁이라도 무너뜨리려는지 우지끈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다행히 시체 안치소의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 때 누가 문틈으로라도 엿보았더라면, 죽어 있는 시체보다 을씨년스럽게 울어 대는 처녀의 모습에 더욱 질렸을 것이다.

이젠 간호원들도 그녀의 열을 재러 오지 않았다. 의사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방해할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널빤지로 된 문짝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까 그 인부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약간 주기가 있는 듯한 얼굴들로서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처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위로차 온 모양이다.

“그양 울 수도 없고, 암매[아마] 향불도 미처 못 구했지 싶어서…….”

그들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남옥 처녀를 때 놓듯이 하고 향을 피워 주었다.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 주었다. 손등에는 빗물들이 번질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혼감한* 정까지 겹쳤음인지 강남옥 처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다.

나이 늙수그레한 인부 한 사람은 병원 구내에 살았던 모양으로 아침 일찍 부인을 시켜 죽까지 한 그릇 치면하게* 갖다주었다. 우격*에 못 이겨 그걸 받아 마시는 강남옥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했다. 죽 위에 사뭇 떨어졌다. 3등 인간도 끝내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간대로: 그리 쉽사리.

*혼감한: 기쁘게 여기어 감동한.

*치면하게: 그릇 속의 내용물이 거의 가장자리까지 차 있게.

*우격: 억지로 우깁.

EBS

#현대소설 ② - 김소진, 「취집기」

그깃 쥐 한 마리 상대하는 것을 가지고 추악한 전쟁 운운하는 데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홍은 일 년 전 이맘때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가던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 표현에는 하등의 부풀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엄습해 온 겨울의 막바지에 불현듯 세상을 등진 아버지를 생각하며 더욱 그러했다. 아버지의 병명은 폐암이었다. 그러나 민홍은 자꾸만 아버지의 가슴에 자랐던 그 암 덩어리가 풀리지 않은 응어리일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생각을 먹어 보기도 했다.

아버지는 잘 싸우는 축이 결코 못 되었다. 민홍이 보기에 는 도무지 무력하기 짝이 없는 병사에 지나지 않았다. 벌써 나흘째 가게 안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는 생쥐 한 마리에 속수무책으로 애만 끊고 있는 게 고작이었다. 어지간하면 집 안 식기와 몇 마디 상의함 직도 했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은 얼굴이 표나게 축이 지면서도 애오라지 당신의 문제로만 치부하려는 고집스러움을 보여 주었다. 그 고집스러움은 무엇보다도 말없음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마냥 입을 한일자로 굳게 다물어 버렸고 민홍은 그 완강함에 밀려 떨쳐잡치 곁들고 있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해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내의 가게에 나타난 쥐를 잡는데 집착하지만 그것마저 번번이 실패한다. 어느 날, 아버지는 민홍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문 앞의 감찰 완장들 중 한 명이 앞으로 한 걸음 내달리며 통명스럽게 내뱉었다. 딱 십분을 주셨으니 잘 생각들 해서 정하우다. 뒷집에서 풀려나 천천히 입으로 올라가는 손가락 사이에는 태를 먹어 금방이라도 산산이 부서져 내릴 듯한 허연 호루라기가 들려 있었다. 양칼지게 불어제 치는 호각 소리에 모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이것이 무슨 꿩꿩이속인가 싶어 숨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오 분쯤 지나자 몇 사람이 후다닥 양쪽으로 오고 갔다. 그러자 서로 기다렸다는 듯 이쪽저쪽으로 뒤죽박죽 오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 앉았던 자리는 북으로 가는 자리였다. 머릿속이 헹헹그렁하게 비어 버려 망창히 앉아 있던 아버지에게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그저 너무 좋다는 생각만 한심하게 다가왔다. 고개를 돌려 보니 수용소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이남 자리로 넘어가서는 아버지 보고 그쪽에 남으면 죽으니 날래 넘어오라구 난리를 쳤다. 갑자기 겁이 더럭 올라붙은 아버지는 시적시적 이남

자리로 옮겨 갔다. 그러나 개인적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하는 생각이 스쳤다. 잔뼈가 굵은 고향이 있었고 거기에 살고 있을 부모처자 — 아버지는 이미 전쟁 전에 장가를 들었다 — 모습이 눈앞에 밟혔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이복 자리로 넘어갔다. 그러나 자리에 앉고 보니 불현듯 물밑 쪽 같은 신세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뭘지 알 수가 없었다.

그만 하는 소리와 함께 호각이 뺏 울렸다. 아버지는 둔기로 뒷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져 왔다. 저 복도는 이미 단순한 복도가 아니라 삼팔선 바로 그것이었다. 아이를 어쩔단 말이나.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차오르는 숨을 가누지 못해 고개를 쳐든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쉼셋 들보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희끄무레한 물체가 들어왔다. 폭동의 와중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깨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해준 그 흰 쥐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남 쪽으로 걸음을 떼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복도 사이로는 감찰 완장들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판국이었다. 아버지는 얼른 복도로 내려섰다. 너무 서두르는 통에 발목을 접질러 비틀거리자 지나가던 감찰 완장 하나가 이놈이 하며 엉덩이를 걷어찼다.

내이가 왜 그랬겠니?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 어딜 간들 하는 생각 때문에 도루 못 가갔드란 말이야. 기거이 바로 사람이야. 웬 쥐였냐고? 글썽 모르지. 기러다 보니 맹탕 헛것이 눈에 끼었는지두. 언젠간 돌아가 갔지 하며 살다 보니……. 암만 생각해 봐두 꿈같기 두 하구…… 기리고 이젠 모르겠어…… 징짜루다 돌아가구 싶은 겐지 그럴 맘이 없는 겐지…… 늪이니까니 암만해두.

깃물러진 눈자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민홍은 뱃속에서 울컥하는 감정 덩어리가 솟구침을 느꼈다. 비껴 앉은 아버지의 야윈 잔등을 보면서 민홍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렸다. 그 화석에 대한 일차적 기억은 앙상함이었고 그리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였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다음 날이었다.

“흐흥 새벽녘에 기러케 몸태질*을 하디이만 이러케 출두를 하셔어.”

사람이 다가서도 움쭉달쭉 못 하고 겁먹은 눈동자만 굴리는 쥐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코 먹은 소리를 냈다. 입가엔 득의만만한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는 녀석의 약점을 진작에 간파해 내고 있었다. 녀석이 꾸준히 입질을 하던 쫓드기 과자에 소금물까지 묻혀 먹여 냈으니 제아무리 발악을 한다 해도 물을 못 먹곤 앞으로 이틀을 버티지 못하리라는 게 아버지의 계산이었다. 아버지는 날이 추워지자 철원네가 가게 진열장 밑에 들여놓은 선인장 화분을 주목했다. 그 선인장

은 쥐가 허겁지겁 쏟아 먹은 흥측한 밑동을 지니고 있었다. 선인장을 치우고 난 자리에 육교 위에서 구입한 끈끈한 아교를 두텁게 바른 콧바닥을 놓고 그 한가운데다 물을 넉넉히 축인 빵죽을 떨궈 놓았다.

녀석은 그 덩에 여지없이 걸려든 것이다.

*몸태질: 악에 받치거나 감정이 몹시 격해지거나 할 때에 기를 쓰면서 자기의 몸을 부딪거나 내어던짐.

EBS

#현대소설 ③ - 전광용, 『사수』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 '나'와 B는 '곰'이란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으나 B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나'의 귓바퀴에 상처가 남는다.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그 후 B가 모반(謀反)* 혐의로 구속되고,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된다.

흰 눈이 쌓인 산록(山麓)*의 바람 소리가 시리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권총 사격에 몇 점, 카빈*에 몇 점, 엠 윈* 소총에는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 낼 도리가 없다.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전기 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사실 그 경우의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與奪)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에…….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受刑)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B의 얼굴에 걸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에 얽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십 미터의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遺言)이 없느냐고 물었다.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다.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

치에 서게 되었었다. 오늘도 이 숨 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 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은 없다.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했을 것이 아닌가.

다섯 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B의 손은 묶인 대로이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리어졌다.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형벌의 표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 또렷하다.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B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희를 찾아갔다. 이 근래의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 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 본 적이 없다. 내 삼십 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 왔다.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이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게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사변 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B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B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餘孀)*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 몇 번이고 죽음에 직

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詰難)도 못 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B의 구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나는 무심중 컷바퀴의 상처에 손이 갔다.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서 없이 한 덩어리로 뭉겨져 엄습해 온다. B와 경희와 꿈과 공기총과, 견잡을 수 없는 착잡한 감정이다.

“겨누어, 총!”

구렁에 맞추어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B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슴쇠 구멍으로 내다보이는 B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 본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언의 위기에 선 B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고……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人指)의 안 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네 사수의 탄환은 분명 저 B의 가슴의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쏘아!”

구렁이 끝나기가 바쁘게 일제히 ‘뿡’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 B와의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총신이 위로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화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때는 이미 B는 다른 네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프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가는가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의 땀을 닦아내고 있다. B와 나란히! 아니, B는 없다. 경희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속에서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모반: 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함.

*산록: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

*카빈, 엠 원: 개인 휴대용 무기의 일종인 소총의 이름들.

*여탈하다: 주거나 빼앗다.

*여신: 타고 남은 불기운.

EBS

#현대소설 ④ - 은희경, 「새의 선물」

허석이 나오는 순간 운명의 여신이 한 번 더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보니 사랑에 빠졌을 때 운명이나 행운을 들먹거리게 되는 것은 꽤나 보편적인 일인 모양이다.

허석은 내가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진희 아직 안 잤구나, 하면서 옆에 나란히 앉는다. 무릎 위에 얹힌 그의 손이 참 예쁘다. 키가 커서 그런지 손가락이 참 길다는 생각이 든다. 저 손가락으로 기타 줄을 튕길 것을 상상하니 어쩐지 그의 옆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인다.

허석은 별을 보는지 잠시 아무 말이 없다. 마당 구석에 있는 도토리 감나무의 가는 가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흔들린다. 허석이 그쪽으로도 얼핏 고개를 돌려 본다. 그 몸짓이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데 그 쓸쓸함이 왜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나는 난데없이 애뜻한 기분이 된다.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 채로, 애뜻한 채로 우리는 한참이나 말없이 밤하늘만 보고 있다. 흐르는지 멈췄는지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갑자기 허석이 낮은 목소리로 “진희야” 하고 부른다. 내가 그의 낮은 목소리만큼이나 조용하고 느린 동작으로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안는 게 아닌가. 그의 팔이 너무도 무거웠다. 아니 사실은 그의 팔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모든 신경이 어깨로만 가 있어서 내 몸 전체가 온 힘을 다해 그의 팔 하나를 받치고 있는 듯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뿐이었다. 무거운 팔 하나를 그렇게 내 어깨에 올려놓고 그가 여전히 밤하늘을 보며 꿈속처럼 말한다.

“며칠 동안 즐거웠는데, 벌써 헤어지게 됐구나.”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소가 풀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의 목소리만을 통째로 삼켜 버린다. 조금 후에야 소의 밥통에서 도로 끄집어내져 씹히는 풀처럼 그의 말을 도로 새김질 해 보자 그제서야 그의 말뜻이 머리에 들어온다. 헤어지게 됐구나, 라고

“언제 가는데요?” / “응. 내일.”

허석의 짧은 대답은 내 가슴을 짝게 찌른다. 그러면, 허석이 떠난다는 말인가?

나에게 있어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이별에 대한 향체가 분비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다.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자 그것을 녹여 없애기 위해 내 마음속에서는 또 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져 있는 참이라서 지금이 순간 나를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성공한다. 진짜 나로부

터 분리되어 나온 나가 허석에게 말한다.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짐짓 명량한 목소리로.

“우리 고향 어떠셨어요? 인상 좋았지요?”

내 어깨 위에 얹은 허석의 팔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 허석이 앉은 채로 내 쪽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나는 조금 안긴 자세가 되어 허석의 눈을 마주 본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허석이 부드러운 보이는 입술을 움직여 말한다.

“응. 특히 진희 넌 잊지 못할 거야.”

나는 그다음에 그가 나를 와락 안아 버리지나 않을까 하고 상상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 그때 마침 삼촌이나 이모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화들짝 팔을 풀고는 괜히 어깨를 툄 다든가 하면서 은밀한 것을 들킨 사람의 무안함을 무마해 본다? 그건 너무 유치한 것이다. 그렇다고 “우린 사랑하니까 상관없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포옹을 하고 있을 자신은 없고…… 어떻게 시치미를 떼야 하나, 그 궁리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를 와락 안아 버리지는 않았다. 대신 내 어깨 위에 얹었던 팔을 쳐들더니 가볍게 등을 몇 번 토닥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몸을 일으키고는 “내일 아침에 보자” 하면서 다시 삼촌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아니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와서 신발을 신는다. 역시 변소 쪽에 볼일이 있는 모양이다.

(중략)

허석이 그렇게 떠나 버린 후에도 내 마음의 평정은 쉽게 되찾아지지 않았다. 나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을 무렵 어느 날 나는 정말 우연히 제방 길을 걷게 되었다. 지난여름에는 일부러이 길을 피해 다녔던 것인데 그 이후 습관이 되어 제방 길 쪽으로는 거의 걸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오랜만에 나와 보는 길이었다.

처음 허석을 만나던 날처럼 노을이 짙게 내려 깔리고 있었다.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며 나는 처음 허석을 만나던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되는 것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일이었다. 허석이 하모니카를 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허석처럼 키가 컸다. 그 옆에는 염소까지 묶여 있었으며 게다가 그 염소의 흰 털이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삶이 나를 조롱하는데 대해 화가 났다. 왜 내게 허석과의 만남을 이처럼 생생하게 기억시키려는 것인가. 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내 눈앞에 연출하여 일껏 벗어나려고 애쓰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을 더 깊이 각인하는가. 화가 난 나머지 나는 삶에 맞서서 삶을 비꼬아 주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하모니카는

없는가? 기왕 모든 것을 재현하려면 하모니카까지 갖추지 않고? ……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 키 큰 남자가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불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억하건대 허석을 처음 만났던 날 들었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순간 그 남자가 허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내 얼굴에는 피가 몰렸다. 한 발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을을 배경으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그의 옆에서 염소가 짧은 다리를 버티기며 줄이 묶인채 이쪽저쪽으로 고갯짓을 하고 있었다. 염소와 하모니카의 완벽한 실루엣이 그의 옆모습을 감쌌다. 그러나 물론 허석은 아니었다.

그제서야 나는 삶의 경고를 깨달았다.

경악한 나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남자 쪽으로 마구 달려가 보았다. 그렇다. 가까이 가서 보니 더욱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날 하모니카를 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었다. 허석이 아니었다. 하모니카와 염소의 실루엣은 허석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내 사랑이 이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마땅히 허석이 아닌 이 더러운 낯빛의 구부정한 아저씨를 사랑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 거였다.

멍하니 서 있는 내게 하모니카 아저씨가 말했다.

“너 하모니카 소리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몇 살이니? 귀엽게 생겼구나. 이리 가까이 와 봐, 아저씨한테. 자, 어서.”

제방 길 옆에 문둥이가 산다느니 폐병 환자가 산다느니 하는 말이 헛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뒤도 안 보고 도망을 쳐야 했다. 집에 가까이 와서야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삶에게 조롱당한 것이 분해서만은 아니었다.

우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아직 내게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었음을 알았으며 내 몸속에 물기로 남아 있는 그 환상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배설시켜 버리기 위해서 울 수 있는 한 실컷 울었다.

EBS

#현대소설 ㉔ - 채만식, 「태평천하」

웃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모시 진술 것이요, 머리에에는 탕건에 반쳐 죽영(竹纒) 달린 통영갓(統營笠)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발에는 크막하니 숨을 한 근씩은 두었음 직한 흰 버선에, 운두 새까만 마른신을 조마땅게 신고, 바른손에는 은으로 개 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요, 왼손에는 서른네 살배기 목직한 합죽선입니다.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일도(一道)의 방백(方伯)*일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 착오를 일으키고, 동경·대판의 사탕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 직원 영감은, 저절로 떠억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섶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건너 젖히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낭끈을 풀습니다.

“인력거 썩이(삿이) 댗 풀이당가?” /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그저 처분해 줘사요!” / 인력거꾼은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실합니다. 좀 짐작다는 손님한테는 항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립니다. 후히 생각해 달란 뜻이지요.

“으응! 그리여잉? 그럼, 그냥 가소!”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찢찢이 바라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낭끈을 도로 비껴맙니다.

인력거꾼은 어떤 영문인지를 몰라 뚜렷뚜렷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굵적굵적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내일? 내일 무엇 허러 올랑가?”

윤 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뜰이나 긴잡이 잔말을 씹힐대서 적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편 인력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 하러 오다니, 외상 준 인력거 샅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덤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그러니 말은 바른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 자못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 직원 영감은 인제는 내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인력거꾼은, 이러다가는 어느 때도 아니요,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 벌이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어, 샷 말씀이올습니다. 헤…….”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는 것뿐입니다.

“짜?” / “네에!” / “아니 여보소, 이 사람…….”

윤 직원 영감은 더러 역정을 내어, 하마 샷대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루 허라구 허잖았녕가?”

(중략)

“헤가 서쪽으서 뜨겼구나?” /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 멧 허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 “중학이 늬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꿩 찡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온 식구가 제가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윤 직원 영감은 마치 목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멎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 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짜글트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윽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중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중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멎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중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허진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비긴 했어요!”

“그러머넌 참말이구나! 그러머넌 참말이여,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어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텨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육지를 헐 놈이, 그놈이 그거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허여? 부잣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너나아?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末世)넌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어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러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멍멍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

* 방백: 조선 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 또는 ‘도지사’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